

“김현수 잡았다” LG, 4년 총액 115억원

2006년 두산베이스 입단해 10시즌간 1131경기 타율 0.318 기록
FA로美 볼티모어 오리올스서 도전...주전 경쟁 밀리며 국내 복귀



자유계약선수 최태어 김현수가 LG 트윈스와 4년 총액 115억원에 계약했다. 계약을 마친 김현수가 구단 점퍼를 입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유계약선수(FA) 최태어 김현수 65억원, 연봉 50억원 등 4년 총액 11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는 19일 "FA 김현수와 계약금 65억원, 연봉 50억원 등 4년 총액 11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했다. 김현수는 2006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15년까지 10시즌 동안 1131 경기 출장, 타율 0.318 1294안타 142홈런 77타점을 기록했다.

2015년 141경기 나서 타율 0.326 167안타 28홈런 121타점의 성적을 거둔 김현수는 그해 야구국가대표팀 프리미어12에서 맹활약하며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FA 자격을 얻었지만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2년 총액 700만 달러에 계약하며 KBO리그가 아닌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던졌다.

데뷔 첫째 3할 타율을 기록하며 연착륙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올 시즌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시즌 중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팀을 옮긴 김현수는 메이저리그 잔류와 국내 복귀를 놓고 저울질하다 LG와 계약하며 내년 시즌 KBO리그에서 활약하게 됐다.

계약을 마친 김현수는 "새로운 기회를 제안해주신 LG 구단에 감사 드린다. LG 선수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팬 분들의 성원에 더 많은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현수는 21일 오후 3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메이플홀에서 입단식과 함께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정우영 무회전 슛, 알고보니 사상 첫 한일전 '프리킥 골'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정우영(충청)의 무회전 슛이 한국의 일본전 첫 직접 프리킥 골로 드러났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정우영의 오른발 프리킥은 역대 한일전 첫 번째 프리킥 골"이라고 소개했다.

정우영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의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2017 동아시아연맹(EAFF) E-1 챔피언십 최종전(3차전)에서 1-1로 맞선 전반 23분 역전골을 터뜨렸다. 프리킥 기회에서 오른발로 강하게 공을 차 일본의 골망을 흔들었다. 제대로 맞은 공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의 슈팅처럼 회전없이 날아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954년 3월 스위스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일본과 첫 대결한 이래 77회의 한일전을 치르는 동안 프리킥으로 직접 골을 넣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정우영이 이색 기록의 1호 주인공이 됐음을 알렸다.

후반 염기훈(수원)마저 프리킥을 골을 성공시키면서 한국은 역대 한일전 한 경기 프리킥 두 골 기록도 동시에 세웠다. 1983년 3월30일생인 염기훈은 만 34세 261일에 A매치 득점 기록으로 한국

선수 A매치 최고령 득점 5위에 올랐다.

최고령 득점자는 김용식 선생으로 39세274일이던 1950년 홍콩과의 친선경기에서 골을 넣었다. 2위와 3위는 1950년대에 활약했던 정국진(37세 120일), 정남식(37세 77일)이다. 현역 선수인 이동국(전북)은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의 친선경기에서 득점해 35세 168일로 4위를 달리고 있다.

이날 전반을 3-1로 앞선 한국은 1975년 9월8일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진행된 한일경기(3-0승) 이후 역대 두 번째 전반 3골을 달성했다. 어웨이에서 전반 3골은 최초다.

모든 기록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한국은 전반 3분(정확히는 2분 37초) 만에 골을 헌납하면서 역대 한일전 최단 시간 실점 2위 기록을 갱신했다. 1위는 지난 1997년 11월1일 1998년 프랑스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경기 때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에게 1분47초 만에 실점한 것이다.

모든 A매치를 통틀어 가장 이른 시간 실점 기록은 터키와의 2002년 한일월드컵 3~4위전 11초다.

LG, 뽕뽕 언 팬심 녹일 김현수 영입 효과

타선 무게감 달라져...전체적 전력 상승도 기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LG 트윈스가 자유계약선수(FA) 최태어 김현수(29) 영입에 성공하며 분위기가 반전에 나섰다. LG는 19일 FA 김현수와 계약금 65억원, 연봉 50억원 등 4년 총액 11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타격기계'로 불리며 KBO리그 정상급 타자로 명성을 쌓은 김현수는 2015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어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두 시즌을 보냈다.

내년 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 잔류와 국내 복귀를 놓고 고민하다 KBO리그 유턴을 선언했다. 친정팀 두산 베어스가 아닌 라이벌 LG의 줌무너 유니폼을 입게 됐다. LG는 김현수 영입으로 타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했다. 타선의 중심을 잡아줄 타자가 필요했고 김현수는 적임자였다.

더욱이 LG는 시즌 종료 후 육성 기조를 내세워 베테랑 선수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팬들의 거센 비난을 샀다.

황재균과 손아섭 등 FA 영입 후보들과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최근에는 외국인 선수 영입에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팬심은 더욱 요동쳤다.

답기야 비난의 화살은 류중일 신임 감독과 양상문 단장에게 향했다.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팬들의 원성에도 LG는 묵묵히 김현수에 공을 들였다. 메이저리그 잔류를 타진하기 위해 윈터미팅에 참가했던 김현수가 소극 없이 돌아오자 LG는 곧바로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며 계약을 이끌어냈다.

LG는 김현수 영입으로 타선의 무

게감부터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외야 한 자리를 확실히 책임지게 되면서 다른 자리는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전체적인 전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김현수 영입은 얻어보지 못한 팬심을 녹일 수 있는 훈풍이 아닐 수 없다. 잠실 라이벌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를 데려왔다는 상징성도 무시 못한다.

별채부터 LG 트윈스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는 김현수 영입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LG 구단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등 분위기가 반전된 상황이다.

김현수 영입에 사실상 올인 했던 LG는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내년 시즌 구상이 바로 섰다. 마지막으로 전력 보강을 위해 외국인 선수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행 박주호 “팀에 기여하면 대표팀 기회 올 것”

“K리그 첫 도전...잘 적응하는게 우선”



울산 현대를 통해 K리그에 뛰어들 박주호가 팀에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2018 러시아월드컵 진출을 일궈내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왼쪽 측면 수비와 중앙 미드필더 소화가 가능한 박주호는 지난 수년 간 대표팀의 필수 지원으로 통했다. 2015년에는 11차례나 A매치를 경험했다.

박주호가 대표팀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다. 소속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에서 자리를 잃으면서 대표팀 소집 명단에서도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신태용 감독 부임 후에는 한 차례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

18일 울산과 계약을 체결한 박주호는 "대표팀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자주 선발됐던 선수라

당연히 선발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 "K리그에 처음 도전하는 만큼 팀에 잘 적응하는게 우선이다. 울산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만큼 대가가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좋은 성적에 기여하다 보면 대표팀 기회는 자연스럽게 오리라 본다."

2008년 일본 J리그 미토 홀리호크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한 박주호는 가시마 앤틀러스 주빌로 이와타(이상 일본), FC바젤(스위스), 마인츠 도르트문트(이상 독일)를 거쳤다. K리그에 적응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주호는 "10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다. 첫 시작만큼 잘해야겠다 생각뿐이다. 팀의 좋은 성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울산을 선택한 배경으로는 "울산에 대한 주위의 관심이 너무 좋았다. 구단에서 좋은 제안도 주셨다. 여러 가지로 타이밍이 맞은 것 같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구단에서 믿음을 주셔서 입단에 대한 확신이 생겨

결정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동료들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짐한 박주호는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 붓겠다고 다짐했다.

"나 역시 후배들과 마찬가지로 K리그에서 똑같이 배우고 도전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박주호는 "운동적인 부분, 경험적인 부분에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 꿈을 가지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 것은 선배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시즌을 두고는 "2017년 울산이 리그와 FA컵에서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시아챔피언스리그는 아쉬움이 컸다. 2018년은 초반부터 잘 준비해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주호는 "팬들께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텐데, 개인이 아닌 팀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겠다. 많이 경기장을 찾아주시면 응원해주시면 선수들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뜨거운 성원을 당부했다.

뉴스스



한국 축구팬이 뽑은 '올해의 골' 이승우 아르헨전 50여m 돌파 골

축구 팬들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골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아르헨티나전에서 나온 이승우(베로나)의 골이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열린 각급 대표팀 경기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열흘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팬 투표를 벌인 결과, 이승우가 아르헨티나와의 U-20 월드컵에서 터뜨린 단독 돌파에 이은 골이 올해의 골에 선정됐다고 19일 전했다.

이승우의 아르헨티나전 골은 총 투표 수 1만9866표중 가장 많은 4705표(23.7%)를 얻었다. 지난 5월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이승우는 하프라인서부터 상대 수비를 제치고 50여m를 질주한 후, 왼발 슛으로 골을 터뜨렸다.

폭풍 같은 돌파와 간결한 마무리가 인상적이었다.

올해의 골 2위도 이승우다. 3월 천안에서 열린 잠비아와의 U-20 대표팀 친선경기에서 골키퍼를 넘기는 감각적인 침습을 선보였다. 4108표를 획득했다.

팬들이 뽑은 '올해의 경기'는 지난 10일 수원에서 열린 남자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콜롬비아전이 선정됐다. 콜롬비아전은 총 2만299표 중 7250표(36%)를 얻었다.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이 두 골을 넣으며 2-1로 승리한 경기다. 호쾌한 공격축구를 선보이며 침체됐던 대표팀의 분위기를 반전을 이끌었다. U-20 월드컵 조별리그 아르헨티나전이 5714표(28.4%)로 2위, 기니전이 2715표(13.5%)로 뒤를 이었다.

뉴스스